종합 KOBA특집
1. 'WMF 2017' 5월 16일 개최
2. 지상파 UHD 방송과 장비 산업 "윈윈 효과 기대"
3. 성공적인 지상파 UHD 안착?…머나먼 길 **2면**

기획 UHD 활성화 필수조건인 현업 인력 재교육
지상파 방송사는 이달 말부터 UHD 본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5면**

오피니언 [칼럼] 세계 최초 UHD TV 본방송
UHD TV 본방송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므로 표준 제정, 방송장비 개발, 송중계망 구축 및 필드 시험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7면**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월간
방송과기술
BROADCASTING & TECHNOLOGY
SINCE 1988 kobeta.com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252호
2017년 5월 9일(화)

'KOBA 2017' 5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

"'UHD의 모든 것' KOBA 2017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올해의 키워드 '4차 산업혁명'…말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확인하자
예비 방송인을 위한 'Pre-Engineer' 기대하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앤엑스가 공동 주최하는 제27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Light Equipment Show, KOBA 2017)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KBS·EBS·CBS·OBS·아리랑국제방송·tbs 등 방송사, 한국음향학회,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KOBA 2017은 미국의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 casters(NAB), 유럽의 Inter 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IBC)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제방송장비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엑스 전시장 A, C, D홀 총 27,997sqm 규모로 진행되며, 약 200여 개의 국내 업체를 비롯해 전 세계 1,0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의 동향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To UHD and Beyond(UHD 그리고 그 너머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KOBA 2017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보름 앞두고 열리는 전시회인 만큼 UHD 방송 서비스의 모든 것과 제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니 코리아 관계자는 "4K 및 하이다이나믹레인지(High Dynamic Range ,HDR) 제작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완성된 4K 라인업 및 HDR 워크플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고, FOR-A는 "4K UHD 제작 환경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규격 12G-SDI 기반의 다양한 장비들을 전시할 예정"이라며 "HD나 4K 등 어떤 제작 환경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 라우터, 컨버터, 멀티뷰어 등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전송 방식이 IP(Internet Protocol)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IP 기반 서비스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 세계적인 키워드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이 방송 시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보는 것도 KOBA 2017의 또 다른 재미다. 업계 관계자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인공지능(AI)·빅데이터·증강현실(AR)·사물 인터넷(IoT)·자율주행 등의 기술들이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직접 보고 체험해볼 수 있어 KOBA 2017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국제방송기술컨퍼런스도 KOBA 2017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UHD △국산 방송 장비 △콘텐츠와 비즈니스 △스마트 미디어 △AI와 빅데이터 △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섹션으로 나눠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방송기술 전반의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KBS·MBC·SBS·EBS·CBS·YTN의 3~5년차 방송기술인들로 구성된 'Pre-Engineer'도 주목할 만하다. 서영우 연합회 정책고문은 "2년 전부터 3년차 방송기술인들이 방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무료 세션을 준비했는데 매번 호응이 너무 좋았다"며 "이번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입사 준비부터 후기까지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5월 31일 지상파 UHD 본방송을 앞두고 토론회도 마련됐다. 연합회는 "UHD 방송은 화질뿐 아니라 IP를 통한 양방향 서비스도 가능하고, 모바일로 HD 방송도 수신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안착까지는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UHD 방송이 제대로 시작하고, 정착될 수 있는데 필요한 정책과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과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토론회는 KOBA 2017 둘째 날인 5월 18일 오후 2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센터 308호에서 열린다. 이외에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한국방송조명연합회, 고일, 삼아프로사운드, 젠하이저&노이만, 에이치디비엔티, 티엔엠테크 등이 기술시연회 및 세미나를 진행한다. 한국방송조명연합회는 "'공연 기획과 연출 미학', '공간 미디어의 태동과 확장', '방송조명연출 사전 기획' 등의 주제로 이관준 교수, 고주원 교수, 김재호 감독을 강연자로 모셔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주요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 "구체성 결여"

언론시민사회단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미디어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검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미디어 정책 공약을 비교·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2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주요 대선 후보의 미디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게 19개 주제 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 중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늦게 제출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방송 장악 진상 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했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했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 후보 모두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차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판했다. 또한 그 외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언론장악방지법 신속히 처리할 것"

먼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 원 구성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언론장악방지법의 국회 통화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세 후보의 공약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국장은 "대통령이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야당에 의한 언론장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좀 더 섬세한 방안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로 공영방송과 평가가 극명하게 뒤바뀐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책을 놓고서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따라 종편도 지상파와 동일하게 규제할 것"이라며 "특히 종편의 특혜에 대해선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 측 역시 "종편 재승인 심사 시 편성의 다양성·공익성 등을 대폭 강화할 것이고, 황금 채널 배정, 1사 1렙 등 기존의 특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종편과 민영 지상파방송의 균형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의무 전송 등 종편 특혜에 대해선 폐지하겠다고 말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에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심상정 "지상파 수신 환경 개선할 것" 적극적 입장

심상정 후보 "안테나 내장된 UHD TV 출시할 것" 약속

지상파방송의 수신 환경 개선과 직접 수신율 확대에 대해선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전면 허용을 주장했고, 직접 수신 제고 정책 추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테나가 내장된 초고화질(UHD) TV 출시 등을 약속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며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심 후보가 제안한 안테나 내장형 UHD TV에 대해선 "다른 후보도 적극 고려해 볼만한 정책"이라며 "정책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지상파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평했다. 노 사무국장은 "공영방송과 지상파로 이어지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 풀 수 없다"며 "직수율 5% 미만, 10% 미만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료 방송 플랫폼을 포기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90% 이상의 가시청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유료방송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원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수신 환경 조성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4면에서 계속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253호는 6월 14일에 발행됩니다.

‘WMF 2017’ 5월 16일 개최

The Next Media Experience, Beyond UHD!

Alison Neplokh, NAB

Mark Cousins, AWS Elementel

Dillon Seo, VoleR Creative

제3회 KOBA 월드미디어포럼(WMF)이 5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룸 401호에서 ‘UHD를 넘어, 다음 미디어 경험!(The Next Media Experience, Beyond UHD)’을 주제로 열린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WMF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예측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 포럼으로 2015년부터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KOBA)’ 첫날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Beyond UHD를 키워드로 UHD로 촉발된 기술 혁신이 미디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패러다임을 이끌어낼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전미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에서 전파 정책을 맡고 있는 Alison Neplokh 전파 정책 담당 부회장이 ‘The Next Media Experience’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lison Neplokh 부회장은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연구 시스템 프로그래머로 시작해 Ericsson의 펌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미디어국(Media Bureau) 수석 기술자로 경력을 쌓았다. 이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부국장을 역임한 뒤 NAB에 합류했다.

서영우 연합회 정책고문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TSC 3.0을 상용화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하게 됐다”며 “ATSC 3.0은 단순한 변신이 아닌 방송의 혁신으로, 이번 강연을 통해 IP와 결합돼 지상파와 인터넷으로 서비스될 융합 서비스의 변화, 그리고 미국 방송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에 대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Mark Cousins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지역 시스템 엔지니어링 총괄이 ‘All In: Cloud Transformation of the Media Industry’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Mark Cousins 총괄은 “미디어 시장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에서는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높은 안정성, 더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클라우드로 인한 미디어 혁신에 대해서 강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강연자로는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가 나선다. 서 대표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스케일폼코리아 지사장, 오토데스크코리아 게임웨어 사업총괄 부장을 거쳐 오큘러스VR코리아 지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인공지능(AI), 기계 학습, 음성인식, VR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볼레크리에이티브를 창업했다. 이날 서 대표는 ‘The Future of VR/AR Media’라는 제목으로 실감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메인 세션 외에 심화 세션에서는 ‘미디어의 변화와 새로운 경험’이라는 주제로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AI 등 미디어 플랫폼의 확장과 이에 따른 콘텐츠 제작의 다양화 등을 중심으로 강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상파 UHD 방송과 장비 산업 “윈윈 효과 기대”

‘국산 방송 장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5월 17일 코엑스에서 열려

오는 5월 31일 세계 최초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시작된다. 지상파 UHD 방송은 그동안 음지에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수해야만 했던 국내 중소 업체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과 추혜선 국회의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국산 방송 장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사실 그동안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등 방송 장비의 주요 수요처에서는 국내 제품이 아닌 외산 제품을 주로 사용해왔다. 국내 중소 업체가 소규모다 보니 촬영부터 편집, 후반 작업, 저장, 송출까지 토털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국내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보니 기능 자체가 어느 정도 선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국내 업체 대부분 규모가 작아 도산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며 “방송 장비라는 것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한 번 구매하면 최소 10년 이상 사용하는데 그 사이 업체가 없어지면 AS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지상파 UHD 방송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고, 아직 미국에서도 ATSC 3.0 표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에서도 관련 장비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시점이 국산 방송 장비 업체에게 기회라는 것이다. 국내 방송사에서 국산 제품을 사용해 기능을 입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면 국내 방송 장비 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몇몇 방송 장비 업체들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해외 수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상파 UHD 본방송을 앞두고 정부와 지상파 등 방송사 관계자, 장비 업체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국내 방송 장비 산업 활성화를 놓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각각의 입장을 듣고 정부 차원의 단일 브랜드 구성 등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 308호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다. 발제는 김성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 강동욱 국민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미래부 관계자를 비롯해 백종호 서울여대 교수, 이성수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팀장, 김창수 루먼텍 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와 방송 장비 업체, 정부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로 방송 장비 산업 활성화가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성공적인 지상파 UHD 안착?…머나먼 길

5월 18일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정책과 과제’ 토론회 개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상파 UHD 방송은 화질뿐 아니라 IP를 통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방송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모바일 단말기로 고화질(HD) 방송을 수신할 수도 있다. 디지털 전환과 마찬가지로 방송 환경이 상당히 변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여전히 성공적인 안착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제야 보급되기 시작한 ATSC 3.0 수신 단말기는 논외로 치더라도 손쉽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내장 안테나의 장착도 어려워졌고, 공시청 시설 구축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에 비해 장비 구매와 데이터 처리, 보관 등 제작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작 비용의 증가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UHD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도 해결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지상파 UHD 방송이 제대로 시작되고 정착될 수 있는 데 필요한 정책과 지원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27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KOBA 2017) 기간 동안 열리는 국제방송기술컨퍼런스의 한 섹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센터 308호에서 개최된다.

박구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교수와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이남표 성균관대 강사, 조삼모 SBS UHD 추진팀 매니저, 김진필 LG전자 연구위원, 한석현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와 지상파, 가전업계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아직까지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라도 확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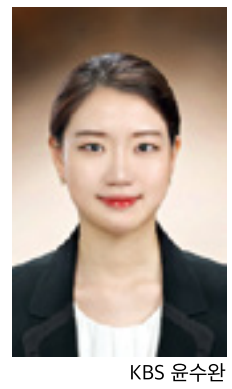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입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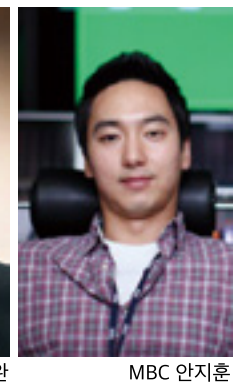
방송기술직 입사 후기&선배와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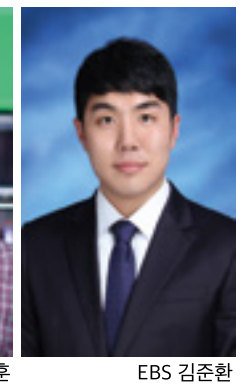
대기업 채용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공기업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방송국도 마찬가지다. 채용 공고는 가뭄에 콩 나듯 나고, 채용 과정은 마치 ‘고시(高試)’와도 같아서 언론고시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어렵다. 하지만 여타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달리 채용 정보도 거의 공개돼 있지 않고, 그나마 알려진 과정도 수시로 변경된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앤엑스가 방송기술직에 관심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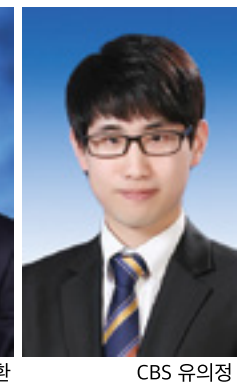
3~5년차 방송기술직들을 모셔 생생한 입사 후기를 듣고, 궁금한 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입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3년 전부터 입사 후기를 들을 수 있는 세션을 준비했는데 매년 큰 호응이 있어 올해도 마련하게 됐다”며 “국제방송기술컨퍼런스가 기본 유료로 운영되는데 이 코너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방송 및 기술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담 없이 오시면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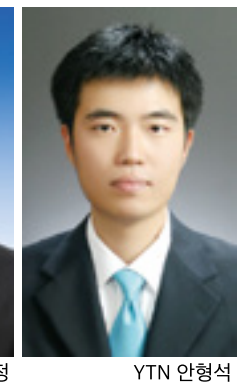
강민정 mjkang@kobeta.com


KBS 윤수완


MBC 안지훈


EBS 김준환


CBS 유의정


YTN 안형석

KOBA 27th CONFERENCE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2017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KOBA World Media Forum 2017

올해 "KOBA 월드미디어포럼 2017"에서는 UHD 이후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미디어 경험'을 이야기 나누기 위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이 혼돈의 패러다임 속에서 기술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미디어 혁신과 시대를 꿰뚫는 변화의 인사이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제** : **UHD를 넘어, 다음 미디어 경험!** The Next Media Experience, beyond UHD!
▸ **일시** :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14:00~17:20
▸ **장소** : Coex 컨퍼런스룸 401호
▸ **참가비** : 무료
▸ **공식 언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제공)
▸ **주최 및 주관**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이앤엑스 방송기술교육원
▸ **후원**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 **문의**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02-3219-5635~42

▸ **KOBA WMF 2017 PROGRAM**

16화

시 간	커리큘럼
14:00~14:15	오프닝 및 축사
	[Session I] 미디어의 미래와 새로운 도전
14:15~14:55	**Alison Neplokh** Vice President for Spectrum Policy, NAB, USA "The Next Media Experience"
14:55~15:35	**Mark Cousins** Head of Systems Engineering, AP/Japan, AWS Elemental "All In: Cloud Transformation of the Media Industry"
15:35~16:15	**Dillon Seo** CEO, VoleR Creative, Korea "The Future of VR/AR media"
16:15~16:30	Break Time
	[Session II] Panel Talk : UHD 너머 새로운 미디어 경험
16:30~17:10	토론 : 미디어의 변화와 새로운 경험 - NAB, AWS, VoleR,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17:10~17:20	마무리 및 경품 추첨

기술 시연회 및 세미나

301호	**삼아프로사운드**		
5월 16일	13:30~15:00	Allen & Heath dLive C Class 신제품 런칭 세미나	Chris Pyne, Technical Marketing Director
5월 17일	13:30~16:00	Audio Fundamental Basics, Monitor-Room Interaction, Speaker placement in control room	Markus Kahelin, Technology Service Manager
402호	**사)한국음향예술인협회**	***유료세션**	www.kare.or.kr / 02-333-6467
5월 16일	11:00~13:00	Audio Engineering in Film Score	한재권 ㈜Moon Studio 대표
	15:00~17:00	콘서트와 뮤지컬에서의 3D 사운드 구현	이수용 ㈜사운드코리아이엔지 CTO
5월 17일	11:00~13:00	음악 페스티벌 음향 시스템 셋업과 이해	정용운 ㈜엘란테크 대표
	15:00~17:00	영상 미디어 음악 제작의 과정과 노하우	신명수 음악감독
310호	**젠하이저&노이만**		1666-0102
5월 17일	10:30~12:00	Digital Wireless microphone system (Digital 6000)	Mr Schmitt, Volker, Director Custome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Engineering
	14:30~16:00	Neumann Mics & Monitor Speaker	
5월 18일	10:30~12:00	Neumann Mics & Monitor Speaker	
	14:30~16:00	Digital Wirelss microphone system (Digital 6000)	
314호	**㈜에이치디비엔티**		010-4701-0518
5월 17일~18일	14:00~15:00	SGO MISTIKA ver.8.7 소개 (HDR Grading / VR / Upscale / EXR 소개) SGO MISTIKA INSIGHT / MISTIKA VR 소개	강지형 팀장
	15:00~16:00	HDR Trend 및 HDR 제작 이론 소개 Colour Management & Colour Science Workflow	
311호	**티엔엠테크**		
5월 18일	10:00~12:00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Gautier Vandomme, VP Business Development APAC
	14:00~16:00		
324호	**㈜고일**		02-2271-0030
5월 18일	14:00~16:00	ARRI ALEXA SXT 최신 업데이트	Mr. Chu, Carlos, Senior Manager, Business Development NEA
			Mr. Kim, Tae Jung,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403호	**한국방송조명연합회**	BEYOND LIGHTING	
5월 18일	09:30~11:10	공연 기획과 연출 미학	이관준 교수
	13:30~15:00	공간 미디어의 태동과 확장	고주원 교수
	15:20~16:00	방송조명연출 사전기획	김재호 감독
	16:30~17:30	주제 토론	각사 조명감독 대표자

※ 위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

KOBA 기간 중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병행 개최되는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에서는 최신 방송기술 및 미디어 동향을 담았습니다. 올해는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되기에 UHD와 HDR 등 관련 기술과 동향을 중심으로 이론, 제작 현장, 주요 이슈를 포함한 방송기술 및 미디어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KOBA 토론회에서는 '국산방송장비의 활성화'와 '지상파 UHD 본방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며, 이밖에도 Pre-Engineer 세션 등 다양한 강의를 모았습니다. KOBA 컨퍼런스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제** : To UHD and Beyond UHD 그리고 그 너머로
▸ **주최**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이앤엑스
▸ **후원**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 **특별후원** : SONY grass valley BELDEN Fraunhofer Limelight
▸ **일시** : 2017년 5월 16일 ~ 18일 ▸ **장소** : COEX 3층 Conference Center
▸ **컨퍼런스 등록 (유료, 5월 12일 등록마감)**
1) 사전등록 - KOBA 홈페이지www.kobashow.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학생 : 16일(2만원), 17일(6만원), 18일(6만원) / 17·18일(11만원) / 16·17일, 16·18일(7만원) / 16·17·18일(12만원)
▷ 일반(비회원) : 사전등록에서 2만원 추가
2) 현장등록 : 사전등록에서 2만원 추가
▸ **문의**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02-3219-5635~42

※ 컨퍼런스 유료등록을 하신 분은 전시회 참관이 무료입니다. 등록비에는 자료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컨퍼런스 최종 구성은 KOBA 홈페이지(www.kobashow.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화

강의실	세션	시간	주제	소속 및 강사
307호	UHD	10:00~10:50	ATSC 3.0 기반 지상파 UHD 표준과 SFN 구축 방안	전성호 KBS 미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11:00~11:50	UHD Customer experience & Service	권기정 SBS UHD 추진팀 매니저
		12:00~12:50	지상파 UHD 방송 주요 기술 이슈 점검	김상진 TTA TC8(방송기술위원회)의장 / SBS 뉴미디어개발팀장
308호	스마트 미디어	10:00~10:50	미디어 산업 동향	조영신 SK 경영경제연구소 박사
		11:00~11:50	방송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 온라인 전송으로 이동	Steve Miller-Jones Limelight Networks Senior Director
		12:00~12:50	MCN 동향 및 전략	김태민 CJ E&M DIATV PD
		13:00~13:50	콘텐츠 가치와 수익 모델에 관한 SMR의 해법	고문석 스마트미디어렙 매니저

17수

강의실	세션	시간	주제	소속 및 강사
307호	UHD	10:30~11:20	ATSC 3.0 MMT/ROUTE 기술 특징	김용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
		11:35~12:25	KBS UHD 주조정실 구축 및 운용	이병호 KBS TV송출부 시스템관리 팀장
		13:40~14:30	4차 산업혁명, 방송 산업의 변화 조짐과 대응	곽천섭 KBS 미래기술연구소 부장
		14:45~15:35	지상파 UHD 방송 부가채널 서비스	김흥묵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그룹장
		15:50~16:40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와 공공 플랫폼	이상진 SBS UHD 추진팀 매니저
308호	UHD 국산방송장비	10:30~12:25	4K 라우터스위처 시스템 적용 및 응용	김창수 루먼텍 연구소장
			IP Workflow와 Cloud Computing	김태한 IML 대표
			지상파 UHDTV 방송을 위한 콘텐츠 보호 기술	오성흔 디지캡 기술연구소장
			지상파 UHDTV 방송 Signal 및 ESG에 대한 이해	홍석구 에어코드 부소장
	Pre-Engineer	13:00~14:30	**방송 엔지니어, 나는 이렇게 입사했다! Season 3** *무료진행	3~5년차 방송기술직 사원 (KBS, MBC, SBS, EBS, CBS, YTN)
	UHD 토론회 I	15:00~17:30	**토론회 : UHD 국산방송장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무료진행	사회 :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제 I : 김성민 ETRI 선임연구원
				발제 II : 강동욱 국민대학교 교수
317호	콘텐츠 & 비즈니스	10:30~11:20	콘텐츠 부가사업 : MBC 무한도전을 중심으로	김영규 MBC 예능마케팅부 차장
		11:35~12:25	SBS OASYS.tv : 방송 아카이브의 새로운 확장	우승헌 SBS 동영상포털 프로젝트팀장
		13:40~14:30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통(Legacy) 미디어의 미래 전략	송민정 한세대학교 교수
		14:45~15:35	'완전 정보의 시대'가 요구하는 동영상 맥락형 정보 기술, '비디오 태그'	김준환 (주)코나드 대표이사 / SBS 플랫폼사업팀장
		15:50~16:40	캐릭터를 활용한 AR 플랫폼	박수왕 소셜네트워크 대표
318호	UHD 제작	10:30~11:20	EOTF 감마 기반의 UHD 포스트프로덕션 이해	박원주 컬러티브 대표
		11:35~12:25	Over the UHD	김승준 KBS 제작기술본부 기획운영팀장
	조명	13:40~14:30	은밀하게 위대하게 <황금주머니> 조명기법	나재희 MBC 조명감독
		14:45~15:35	4K 드라마 제작 및 조명 디자인 고찰	이승현 SBS A&T 조명감독
		15:50~16:40	촬영 클래스, 스토리텔링과 샷 디자인	김병일 촬영감독

18목

강의실	세션	시간	주제	소속 및 강사
307호	UHD 제작	10:30~11:20	UHD 제작사례와 워크플로우	김현민 SBS 편집기술팀
		11:35~12:25	4K REMASTERING 개요	이현민 넓은벌동쪽 실장
		13:40~14:30	영상 제작의 진화, HDR의 이해와 운용	김경우 소니코리아 PS마케팅 팀장
		14:45~15:35	UHD HDR 콘텐츠 분석 및 제작사례 연구	김상일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15:50~16:40	SDR and HDR - Workflows for Live Production	Klaus Weber Grass Valley Senior Product Marketing Manager
308호	인터페이스	10:30~11:20	차세대 인터페이스 규격 및 UHD 신호, HDR 이해	권태석 Leader 코리아 지사장
		11:35~12:25	12GHz The New Frontier (Exploring 4K Cable Technology)	Steve Lampen Entertainment Products Belden Multimedia Technology Manager
	UHD 토론회 II	14:00~16:30	**토론회 :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 정책과 과제는?** *무료진행	사회 : 박구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제 I :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교수
				발제 II :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
317호	인공지능 & 빅데이터	10:30~11:20	AI 기술의 이해와 한국형 사업 현황 소개	장현기 SK㈜ 에이브릴플랫폼 팀장
		11:35~12:25	방송 빅데이터 활용 : Data Cleaning	이명호 상명대학교 부교수
		13:40~14:30	AI, 미디어 경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윤호 알티캐스트 AI biz TF장
		14:45~15:35	IBM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적용사례	정창우 IBM 상무
		15:50~16:40	인공지능 음성비서 플랫폼이 소리매체에 미칠 영향	임재윤 MBC 미래방송연구소 차장
318호	음향	10:30~11:20	라이브 믹싱 테크닉	김도석 서울음향 부문대표
		11:35~12:25	MPEG-H 3D Audio : The audio side of the Korean UHDTV system	Stefan Meltzer Fraunhofer IIS Technology Consultant
	미디어 서비스	13:40~14:30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미디어 분석 방법의 체계화	최홍규 EBS 미래전략팀 연구위원
		14:45~15:35	OTT 서비스의 지상파 콘텐츠 이용 현황	조석현 MBC 국내유통사업부장
		15:50~16:40	클라우드를 통한 미디어 서비스 혁신	김기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OBS 결국 13명 정리해고…비판의 목소리 잇따라

미방위 국회의원들 "OBS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영안모자"
문재인 민주당 후보 "해고는 노동자에게 사망 선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경영 의지가 없는 OBS 대주주는 물러나야"

OBS가 결국 언론 노동자 13명을 해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퇴직금 출자 전환'을 공식 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고를 막지는 못했다.

OBS 노조는 긴급 성명을 통해 "사측은 4월 14일 오후 당사자들에게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지했지만 지난 3월 말 공시된 2016년 OBS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61억 원으로 (사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1,600만 경인 지역 시청 주권과 언론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백성학 회장 대주주 퇴출 투쟁 돌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성학 회장은) 공익적 민영 방송으로 우리 사회의 나눔과 희망을 전파하겠다는 창사 당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불러온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지지 않은 채, 툭하면 정리해고 협박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뜯어내어 회사를 운영해왔다"며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OBS 노조에 따르면 OBS 1대 주주인 백성학 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 조건으로 내건 증자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주주의 증자 거부에 노조는 '퇴직금 출자 전환을 통한 증자'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사측에서 거부했다.

유진영 OBS 노조위원장은 "태업 경영을 하면서 경영 위기를 조장한 것은 바로 경영진"이라며 △연간 60억 원 순익이 가능한 지상파 재송신료(CPS) 방치 △광고 매출 하락 방치 △증자 외면 등을 언급했다.

5월 2일 열린 'OBS 방송 사유화 실태 고발 및 사측의 허위 주장 반박·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OBS는 곧 망할 회사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고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라며 사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대표도 "OBS는 재무적 상황으로 보면 경영 위기가 아니고, 망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정리해고는 말이 안 된다"며 "OBS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면서도 소통과 해결 방안은 찾지 않는다는 것 자체에서 대단히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국회의원들은 4월 17일 "태업 경영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는 OBS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OBS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최다출자자인 ㈜영안모자의 부실한 재정 운용과 경영 실패에서 기인했다"며 "사측의 경영 의지 부족과 방만 운영에도 불구하고 OBS 구성원들은 지난 10년간 3차례에 걸쳐 임금 10%를 양보하고, 퇴직금까지 내놓기로 했는데 정리해고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OBS의 무차별적인 해고와 노조 탄압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의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OBS가 13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끝내 강행했는데 해고는 노동자에게 사망 선고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노조 측 주장대로 사측이 명분으로 내세운 경영난이 허구라면 노조 무력화와 방송 장악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도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캠프의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현재 OBS의 작태는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방송과 지역 방송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자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방송사 경영의 의지가 없음을 고백한 OBS 대주주는 시청자들의 좋은 방송 볼 권리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나섰다. 언론노조는 "경영상 합리적 근거와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OBS의 막무가내 우격다짐 정리해고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언론노조는 정리해고를 강행한 OBS 대주주와 경영진을 오늘부터 청산해야 할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조직의 명운을 건 싸움에 나서려 한다"고 주장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난 정부의 콘텐츠 정책,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

한국방송학회, '방송 콘텐츠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세미나 개최

지난 정부의 방송 콘텐츠 정책을 평가가 이뤄진 자리에서 방송 사업자, 정책 집행자, 시청자 등 관계자 누구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

한국방송학회는 4월 13일 오후 3시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콘텐츠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선 지난 정부의 방송 콘텐츠 정책을 평가하면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방송 콘텐츠를 담당하는 부서만 3곳"이라며 업무의 중복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며 정교화하는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송 콘텐츠 정책에 만족하지 못한 것은 시청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지난 정부는 명백히 유료방송과 통신 사업자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미디어를 도구화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실제로 콘텐츠 정책이 따로 있었냐"고 반문했다. 한류로 얼마나 벌었는지, 글로벌 시장에 얼마나 진출했는지 등 경제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뿐, 시청자가 질 좋은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시청자의 권리와 후생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김유정 MBC 편성국 전문연구위원은 보수 정권하에서 이뤄진 '매체 균형 발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KBS의 〈태양의 후예〉와 tvN의 〈응답하라 1988〉의 시청률을 비교했을 때, 〈태양의 후예〉의 시청률이 2배 정도였지만, 광고 매출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 성과와 이용 지표라 할 수 있는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매체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다른 방송사 간의 비대칭 규제로 인한 것이다. 김 전문연구위원은 "매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적 수단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전문연구위원은 "정책 과제를 생각했을 때,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라는 것은 중간 광고 허용, 수신료 인상,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SBS의 〈신사임당〉이 7개국에서 동시 방영한 사례를 들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방송사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동시 방영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규제 완화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영 비율도 낡은 정책의 허물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제한적이던 시절 생겨난 비율 규제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관성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환경, 콘텐츠가 왕이 되는 환경이 이제야말로 온 것"이라며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송 콘텐츠 정책의 실현을 요구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정부vs민간, '방송통신 내용 규제' 주도권은 어디로?

"기구의 목표와 철학부터 명확해야"

방송통신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주도해야 할까, 민간이 주도해야 할까? 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자율 심의 기구의 설립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방송통신 심의 기구의 개선 방안 중 완전한 자율 기구 설립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는 자율 기구의 심의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보이겠냐는 것이다. 지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는 콘텐츠의 영향력이 가지는 위험성, 심의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지난 2010년 이탈리아와 구글 간 분쟁 사례를 들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자폐증에 걸린 소년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동영상이 구글에 몇 달씩 게재되자 구글의 전·현직 임원 3명을 사생활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형벌 부과 또는 심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 교수는 이처럼 국제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를 자율 기구가 감당할 수 없다며 "자율 심의는 좋지만 국가와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성옥 경기대 교수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방심위를 해체하고 자율 심의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했다. 윤 교수는 "자율 기구를 시행한 국가의 결과물을 보면 자율 기구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율 기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 대표는 "자율 심의를 믿기 때문에 자율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교수의 의견에 반박했다. 자율 심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이를 인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 심의를 우선으로 해 정부 주도의 검열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문제가 없는 제도는 없으며 관건은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다. 강 대표는 "각 자율 기구의 운영을 평가·관리하는 통합적 민간 기구를 통해 사후 관리가 잘되도록 해 상호보완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정부 주도의 심의 또는 민간 주도의 심의, 제도 개선 등 시스템의 문제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정치적 심의다', '사실상 검열이다' 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 방심위의 심의에 대해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국장은 "상임위원이야 임기 끝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구성원들이 적극적 의견 표명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그동안 심의 기구에 진정한 목표와 철학이 있었는지 반문했다. 심 교수는 "방심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청자를 위해?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일괄된 정책을 진행할 수 없다. 그까짓게 뭐가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목표에 따라 정책은 굉장히 달라진다. 누구를 위한 기구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뚜렷한 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관철할 것을 주장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ETRI, 고화질 DMB 베트남 진출

베트남 4개 도시 모바일 사업 허가권 획득

베트남 국영 방송사인 호찌민TV 자회사 SDTV는 지상파 DMB 모바일 사업 허가권을 베트남 정보통신부로부터 획득했다. 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디엠브로가 공동으로 추진한 지상파 DMB 해외 기술 사업화의 결실이다.

ETRI와 연구원 기술 출자 기업인 ㈜디엠브로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칸토 등 4개 도시 허가권을 동시에 얻은 SDTV와 함께 우선 호찌민시를 대상으로 8개 채널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4월 27일 밝혔다.

이번 베트남 진출 성과는 ETRI가 지상파 DMB 기술을 출자 업체인 ㈜디엠브로와 3년간의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이룬 쾌거다. ETRI는 지난 2003년 세계 최초 지상파 DMB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에 성공했으나 각 나라마다 통신 규격과 환경의 제약으로 해외 진출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 노력 끝에 ETRI와 기술 출자 업체 ㈜디엠브로는 지난 2010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영방송사와 함께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 해외 진출의 물꼬를 텄다.

ETRI 관계자는 "2014년 7월부터 베트남 호찌민TV 자회사인 SDTV와 DMB 상용 서비스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술 차별성을 증명해야 했다"며 "베트남의 3세대(3G) 이동통신 환경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과부하 문제와 유휴 주파수인 VHF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호찌민을 시작으로 수상 관광 도시인 칸토, 하노이, 다낭 등 서비스 확장을 통해 DMB 방송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배문식 ETRI 사업화부문장은 "이번 성과는 베트남의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 지상파 DMB 기술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 있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진행한 것이며, 연구원 기술 출자 기업을 지속적으로 도와 사업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찌민TV 자회사인 SDTV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료화를 기반으로 8채널 이상의 고화질 DMB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콘텐츠로는 호찌민TV 자체 방송 및 한류 콘텐츠, 홈쇼핑 채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TRI는 DMB 유료화 서비스의 핵심 소프트웨어인(CAS)를 통해 베트남 SDTV의 유료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료 서비스인 한국과 달리 SDTV는 고화질 DMB 서비스 수신 요금을 월 3~4달러로 예정하고 있으며, ETRI는 CAS 런닝 로얄티(Running Royalty)로 단말기당 0.5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주요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 "구체성 결여"

언론시민사회단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미디어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1면에 이어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졸속 처리될 수도 있어" 우려

현재 관련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방안에 대해선 세 명의 후보 모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 시점에서 확정된 안이 없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단순화-전문화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할 것", 심상정 후보는 "방송, 신문, 포털, 통신 등 미디어 총괄 합의제 기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세 후보 모두 방송통신규제기구가 담당해야 할 규제 범위와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규제 기구 개편은 구성과 운영만이 아니라 규제 철학과 영역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 추후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평했다.

방송통신심의제도 개편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행정 심의 대상의 축소 및 인터넷 행정 심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명령권 폐지 등에 찬성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세 후보의 공약 모두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후보의 공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22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적 의지가 있으나 공식 미디어 공약 발표가 부재하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콜센터 노동자 등 감정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다수 정책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이 많고 개혁성이 후퇴하는 답변도 보인다", 심상정 후보에 대해선 "시민사회단체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이 높지만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후보별 총평을 내놓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수신료 현실화,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지상파 UHD 본방송의 성공적 안착,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 방송 업계의 M&A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각 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 각 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에 미디어 정책 관련한 내용은 거의 없다"며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많기는 하지만 언론 미디어가 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는 만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UHD 활성화 필수조건인 현업 인력 재교육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성진**
KBS 본사 중계기술국 차장 **문명석**

I. 요약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내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을 금년 5월 말로 결정하였다. 지상파 UHD는 단순한 화질 개선을 넘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미디어 시장에서 양질의 방송 콘텐츠 무료 접근권 보장, 국가 재난 방송의 최후 보루, 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의 첨병 역할 등 공공 플랫폼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UHD 전환에 따른 방송기술 현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필요성에 대해 최근 국내 미디어 환경 변화 중에서 지상파TV HD 전환 정책, 3D 산업 발전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UHD 본방송 서비스는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4차 혁명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국민 생활의 모든 것이 UHD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멀지 않은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지상파 플랫폼이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의 획기적인 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만간 들어설 새로운 정부가 지상파의 공공 기능 역할을 고려하여 UHD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설 투자 지원은 물론이고, 현업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II. 서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을 2017년 5월말로 결정했다.[1] 국내 UHD 본방송 서비스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출범했다. 지상파 UHD는 단순한 화질 개선을 넘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미디어 시장에서 양질의 방송 콘텐츠 무료 접근권 보장, 국가 재난 방송의 최후 보루, 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의 첨병 역할 등 공공 플랫폼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평창올림픽 개최 D-1년인 2017년에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지상파 방송사가 UHD 방송 전환 완료를 위해 향후 12년 간 총 6조7,902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2] 후속 추진 과제로 지상파 UHD 방송 개시에 따른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하고, 국내 UHD 방송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국제방송장비전시회인 NAB 2017에 참가하여 한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상용화한다고 홍보했다.[3] 미래창조과학부는 NAB 2017에서 한국의 UHD 방송 도입 현황 및 기술 개발 방향을 소개하는 콘퍼런스와 한국 UHD 방송의 신규 서비스 로드맵을 제시하고, 방송 장비를 전시하는 한국 UHD 테마관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는 UHD 방송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상파방송 기술 현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져 있다. 지상파 플랫폼의 UHD로의 전환은 단순한 화질 개선을 넘어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AnyOne, AnyTime, AnyWhere, AnyDevice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제4차 산업 혁명의 첨병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UHD 전환에 따른 방송기술 현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필요성에 대해 국내 미디어 환경 변화 중에서 지상파TV HD 전환 정책, 3D 산업 발전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정책 사례 분석

정부가 최근에 추진한 미디어 정책 중에서 지상파방송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은 디지털TV로의 전환인 HD 전환과 3D 산업 발전 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HD 전환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지상파 방송사는 2012년 말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면서 디지털TV로의 전환을 완료하였다. 1997년 정부 5개 부처[4]에서 「지상파 디지털TV 조기 방송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방송 산업 및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포함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디지털방송의 전면 실시를 위해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8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지상파방송 기술 현업인들에 대해 「디지털방송기술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디지털TV 전환 완료시까지 시행하였다.

정부가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업인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시행한 배경은 국내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전환에 수조 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부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없었고, 매년 제작비 상승과 광고비 감소에 따른 삼중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가 현업인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지상파 현업인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가가 재정적, 제도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국내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주도적인 사업에 지상파 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완료를 위해 현업 인력에 대한 디지털 방송 직무 교육을 실시한 결과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다양한 무료 보편적 디지털 방송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3D 산업 발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부는 「3D 산업 발전 전략」 정책을 마련하고 3D 방송 시대의 개막을 위해 2015년까지 3D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다.[5] 정부는 3D 산업이 경제·문화·사회 전반에 비약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 패러다임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IT·콘텐츠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정책 수립 배경을 밝혔다. 정책에서 단기 방안으로 TV 산업 활성화를 위해 TV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지상파 3D 제작을 지원함과 동시에 영화·게임·방송 제작에 필요한 3D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상파 사업자는 3D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 HD 전환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부담감과 정부의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3D 산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정부 주도의 3D 활성화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것은 정부의 미디어 정책 중 방송 산업에 관련한 정책은 지상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미디어 정책 추진 중 방송과 관련된 최근 HD 전환과 3D 산업 발전 정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정부 주도의 미디어 정책은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TV로의 HD 전환은 정부 주도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이었다. 산업 분야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국내 가전업체를 포함해서 유료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지상파 등 미디어 전반에 큰 변화와 심지어 시청자인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상파의 HD 전환 이후 플랫폼의 역할이 약화되었고, 디지털 전환 투자에 따른 차입금의 증가로 제작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해져서 프로그램 경쟁력 또한 떨어지고, 이에 따른 광고비 감소로 인한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국내 가전업체는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었다.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최근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국 내 지상파가 사라진 대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파가 사라지면 무분별한 외국 콘텐츠의 범람과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관련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만이 아닌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상파방송 정책은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은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에 구분 없이 구성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공적 역할의 책임을 지고 있다.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미디어인 지상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는 미디어의 무한경쟁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혁신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탈바꿈을 해야 하고, 정부 또한 사회적 공기(公器)인 지상파가 공적 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지상파의 성장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에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정부 주도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의 두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HD 전환 시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업인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나, 3D 산업 발전에서는 지상파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HD 전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3D 산업의 활성화는 제한적이었다.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현업 인력 재교육이 미디어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인과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지상파 방송사는 이달 말부터 UHD 본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 추진 중 방송과 관련된 HD 전환과 3D 산업 발전 정책에 대해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정부 주도의 미디어 정책은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지상파방송 정책은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에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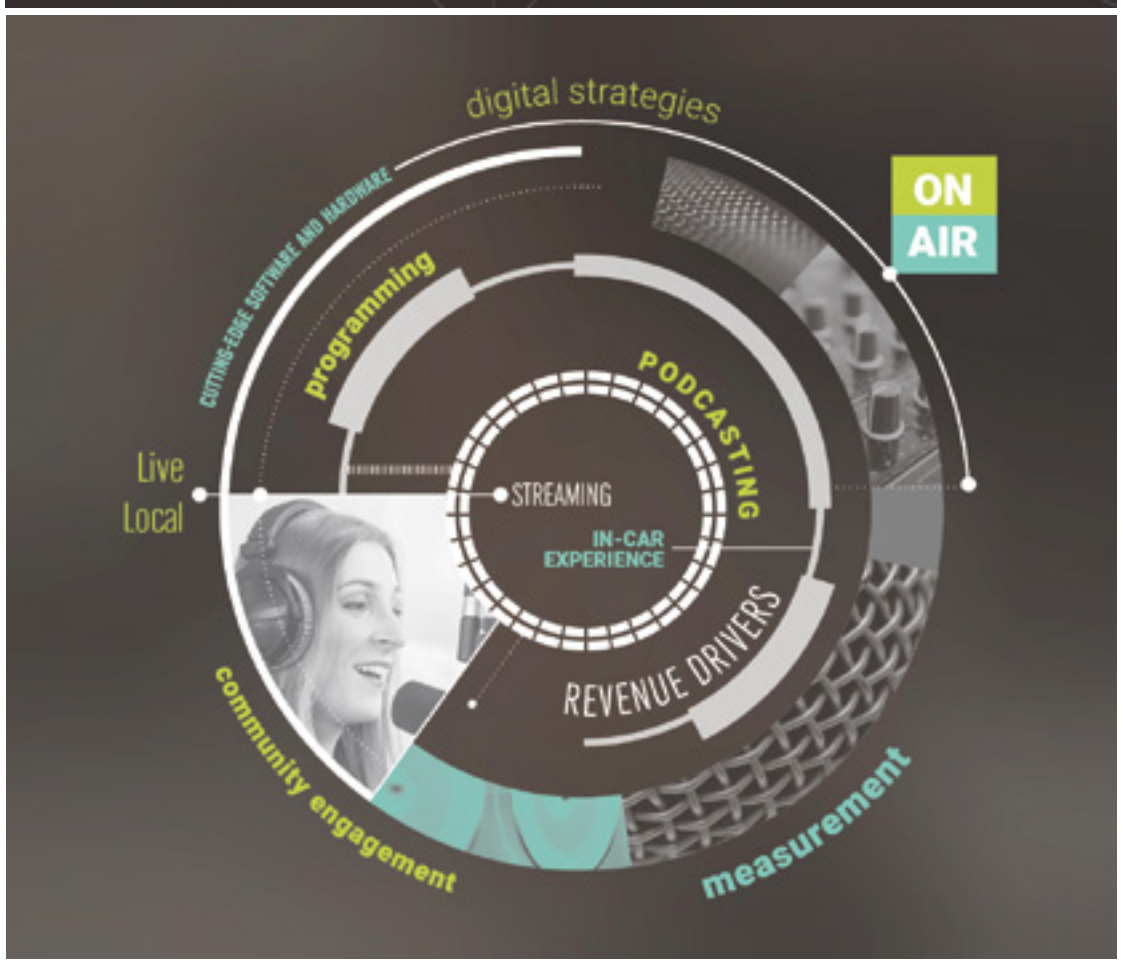
조만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의 ICT 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본다. UHD 본방송 서비스는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4차 혁명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국민 생활의 모든 것이 UHD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이지는 상황이 멀지 않은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지상파 플랫폼은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의 획기적인 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만간 들어설 새로운 정부가 지상파의 공공기능 역할을 고려하여 UHD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설투자에 지원은 물론이고, 현업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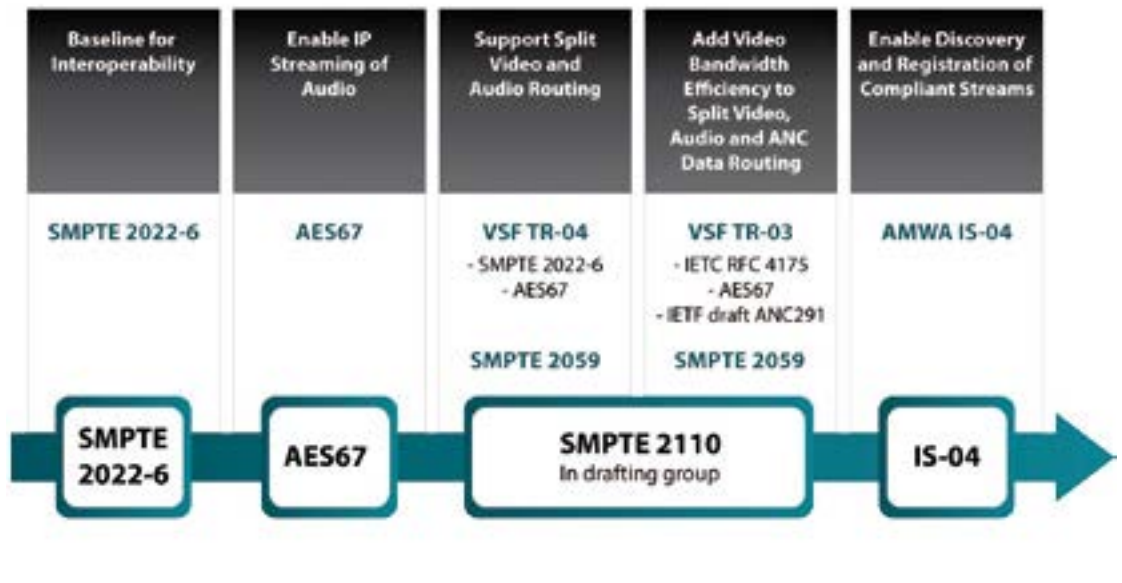
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7.2.15.(수)
2)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12.29.(화)
3) ZDNet Korea, 2017.4.23., 방송/통신
4) 5개 부처 : 재경부,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5)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4.8.(목)

참고문헌
① 한국방송협회, “ 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과보고서”, 2010.12
② 미래부, 방통위, “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2015.12
③ 박재문, “ 디지털 융합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한국통신학회, 제28권 제1호, pp.4~8, 2010.12

NAB 2017 관람기 - IP 신호 기반 방송 환경의 가능성을 보다

최영학 CBS 디지털기술국 정보네트워크부장





NAB Show 2017이 2017년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방송장비전시회인 NAB Show는 'The M.E.T. Effect'라는 주제로 6일간 열렸으며, 103,443명이 참관하고 1,091,792㎡의 전시장에 161개국 1,806개 업체가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다양한 주제의 콘퍼런스와 각종 쇼케이스를 통해 미디어(Media),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기술(Technology)이 과거보다 쉽고 빠르게 연결되고 융합되는 환경과 그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전시회에 참가한 방송 관련자들에게 방송 장비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됐다.

미디어 산업의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방송 현장의 앵커, PD, 엔지니어 현업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Video, Mobile, Social Media 등 11개의 커뮤니티별로 준비한 142개 세션의 다양한 강좌에 담아, 실무자로서 변화의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리를 관람객과 공유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방송과 IT가 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미디어 시장의 일원이 된 Google, Facebook, Amazon과 같은 IT 기업도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 나름의 미디어 전략을 가지고 참여한 것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드론 등의 아이템이 전시장의 한자리를 차지한 것은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됐다.

4K UHD 영상의 IP 라이브 제작 실용화 가능성 확인

NAB, IBC와 같은 최근 전시회에서 UHD TV 관련 방송 시스템의 소개와 방송 신호의 IP 전송이 뜨거운 주제였다. 그동안 전시회를 통해 4K UHD를 구현하는 새로운 제작 장비가 소개되고 점차 기능이 향상돼 전체 시스템의 그림이 하나하나 그려지는 모양새였다면 이번 NAB Show 2017은 UHD TV 서비스를 앞두고 실제 라이브 제작에 적합한 장비가 다양하게 소개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UHD를 포함한 방송의 모든 워크플로가 IP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이뤄지는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확장성, 호환성, 효율성 등과 심지어 비용적 부분에서도 더 유리한 IP 신호 기반의 스마트한 장비가 많이 소개됐다. 12G SDI 신호 기반의 4K UHD 장비를 선호한 이유가 됐던 IP 신호의 운영상 불편함이 해소됐고 다양한 네트워크 관련 기성품의 가격이 인하돼 4K UHD 제작 시설의 구축이 단순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IP 신호와 기존 SDI 신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IP 신호 처리 장비 및 기술들이 대거 전시됐다.

관련 콘퍼런스와 강좌, 전시 등을 통해 AIMS (Alliance for IP Media Solutions)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논의되고 시험돼 온 IP를 통한 영상 제작 기술의 표준화가 많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었다. 비디오, 오디오, 메타데이터 등의 방송 신호를 다양한 방식(SDI, IP)으로 전송하는 SMPTE ST2110 표준들이 조만간 인준될 것이며, 이 표준에 맞춘 방송 장비가 잇달아 생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UHD 장비 제조사들이 비압축 영상 신호를 IP로 전송하는 표준인 SMPTE ST2110-20도 향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중반까지는 이 표준에 맞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SMPTE 2110-20 표준을 적용하면 4K UHD 영상을 제작하는 데 TICO 나 LLVC 등의 압축 코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4K UHD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압축 코덱과 관계없이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도 보다 유연한 제작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IP Showcase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North Hall 중앙에서는 'IP SHOWCASE'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IP 제작 시설을 구축해 시연하고 SMPTE ST2110 표준을 중심으로 한 IP 기술 관련 강좌를 진행해 방송 관계자와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IP Showcase는 AIMS를 위시한 AWMA, EBU, iABM, SMPTE 및 VSF 등과 같은 여러 표준 정책 수립에 관련된 단체가 공동으로 전시 및 교육을 진행한 전시 부스로, 다양한 기술 표준의 해설 및 교육과 30여 개 제조사 장비 모두 IP 기반으로 구축한 방송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IP 기반의 제작 솔루션이 실용화 단계임을 입증했다.

최종 인증 중인 SMPTE 2110을 통한 상호 호환 운용(SMPTE ST 2110 Final Draft Interoperability)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축된 시설에서의 비디오 및 오디오 제작, PTP 신호 및 메타데이터의 활용 등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으며, 구간별 신호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 부스 옆에 마련된 교육장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 SMPTE 2110 표준에 대한 기술적 내용과 비즈니스 장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나흘 동안 온종일 진행했으며, 관람객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효과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전시를 통해 IP 시설을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와 궁금증을 불식시키는 좋은 자리였다.

맺으며

8년 만에 다시 참관한 NAB 전시회는 그 때에 비해 볼거리가 훨씬 많아져서 바쁘게 움직이며 새로운 동향과 정보를 확인한 풍성하고도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고 다양한 가능성을 전하는 업체와 시스템이 많아져서 앞으로의 전시회가 더욱 기대된다. 미디어 관련 IT 기업이 많아지고 IP 관련 기술이 풍성해지는 것은 방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 좋은 일이지만, 알아야 할 지식과 수행해야 할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담도 갖게 된 자리였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UHD TV 본방송 방송기술의 어벤저스

칼럼

오건식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모 그룹의 광고 카피가 있었다. 우리는 ATV 100위권, DTV 10위권 밖이었지만 UHD TV에서는 '누구나 기억하는 1등'을 달성한 것이다. 어마무시한 격세지감의 일을 우리 손으로 해낸 것이다.

보통 대한민국 TV 방송의 역사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있다. 바로 1980년의 '컬러TV 방송 시작'이다. 비록 시작은 신군부에 의한 여론 환기용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을 확 바꿔 놓은 것은 사실이다. 사람은 사물을 컬러로 인식하지만 개는 흑백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방송으로만 따지면 1980년도 이전에 시청자는 개와 유사했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이 된 것이다. 컬러TV 방송을 시작한 지 40년이 다 돼 가는 작년에 '국민은 개·돼지' 논란이 벌어진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컬러TV 방송 이후에 방식 선정 문제로 시끄러웠던 DTV 본방송 실시 및 아날로그 TV 종료가 있었다. 되돌아보면 역대 TV 방송 방식 결정만큼은 한미 공조가 확실했다. ATV에서는 당연하게 NTSC 방식이 선정됐고, DTV 표준 방식 선정에서 거의 모든 방송기술인의 열망인 유럽의 DVB 방식을 제치고 미국의 ATSC 방식 도입이 결정됐다. UHD TV 방식 선정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DVB-T2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다. '빨리빨리'를 제1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Dynamic Korea에서 보기에 그 당시에 바로 적용 가능한 UHD TV 방식은 유럽 방식밖에 없었으니까. 아직도 DVB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을 보면 대한민국은 UHD TV 방식을 T2로 결정한 나라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66개국에서 유럽 방식의 DVB(DBV-T, DVB-T2)로 DTV 방송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 우리가 ATSC 3.0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5월 31일 그 역사적인 본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나 보다. 옛 애인이 지금도 애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지. 대한민국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누군가가 꼭 알려주시기 바란다.

방송기술 엔지니어로 살면서 DTV 본방송과 UHD TV 본방송 개시를 모두 경험해보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UHD TV 본방송이 시작되는 5월 31일은 DTV 본방송이 시작된 2001년 10월 26일에서 5,697일째 되는 날로, 방송기술 엔지니어로 최소 16년 이상을 근무해야 경험할 수 있다. 2001년의 DTV 본방송 실시는 세계적으로 10위권 밖이다. DTV 방식 논쟁과는 별개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해 본 것을 도입한 것이라 비교적 시행착오가 적었다. 그런데 UHD TV 본방송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므로 표준 제정, 방송 장비 개발, 송중계망 구축 및 필드 시험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DVB-T2에서 변심을 결심하면서 ATSC 3.0 표준 제정 단계부터 큰 역할을 해왔다. 대부분의 표준 내용에는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 3월에 열린 'Global UHD TV Forum'은 UHD TV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제는 우리가 '~~을 해봤더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거의 독학을 통해 원조가 된 것이다. 참고서 없이 표준이라는 교과서만 공부해서 이룬 성과다. 그런 면에서 실험 방송부터 참여한 방송기술 엔지니어들은 이제는 좀 자뻑을 해도 될 듯하다. 이들의 노고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비로소 전 세계 방송기술의 변방에서 어벤저스 일원이 된 것이다. 수없이 많은 DTV PG 회의 및 분과 회의, 방송 장비 업체와의 미팅, 실험 방송 전파 측정 등 노력의 결과물로 이룬 업적이다. 파트너가 되어준 방송 장비 업체들과 가전사들의 도움도 여기에 큰 역할을 했다. 다만, 본디 9월 본방송 실시를 원했으나 조금 앞당겨진 일정으로 일부 부문에서 아직 충분한 Field Test를 거치지 않은 점과 ATSC 3.0 튜너를 내장한 수신기의 보급이 늦은 점 등이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2달 만에 대통령도 뽑는 Dynamic Korea에서는 뭐 대단한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에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시청자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모 그룹의 광고 카피가 있었다. 우리는 ATV 100위권, DTV 10위권 밖이었지만 UHD TV에서는 '누구나 기억하는 1등'을 달성한 것이다. 어마무시한 격세지감의 일을 우리 손으로 해낸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아날로그 TV 시절에 입사해서 DTV 본방송, UHD TV 본방송 개시의 현장에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한 컬러TV 방송 개시 현장에도 있었다면 3관왕이 됐을 텐데, 그러기에는 연식이 조금 모자란다. 어쩌면 'ATV, DTV, UHD TV 모두 경험한 자 잠들다'는 필자의 묘비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 5월 31일 같이 경축해야 하는 날은 방송사 자체적으로 유급 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사설

새 정부에 바란다! '방송·미디어 공영성 회복 시급하다'

치열했던 대선이 마무리됐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의 혼란과 허망함에서 벗어나, 전보다는 삶이 더 나아지고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는 희망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된 과제로 논의됐던 국민 대통합과 사드 문제 등 국가 안보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합하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혁의 중심에 방송 분야에 대한 개혁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기 대선을 낳게 한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린 것도 언론이었으나, 이어진 촛불 집회 등에서는 부당함에 눈감은 언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의문과 개혁 필요성도 거세게 요구됐다.

이를 반영하듯 대선 과정에서 후보 대부분은 언론개혁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히나 '미디어의 공공·공익적 역할 복원'에 대해서는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 9년 동안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은 국민 전체를 위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보다는 종합편성채널, IPTV 등 상업주의적 관점의 사업 육성에 중심을 뒀었다고 할 수 있다. 다채널 등 차세대 무료 서비스 정책 마련은 미비해 공공재인 지상파 직접 수신율은 급락했으나, 거대 통신사와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IPTV, 재벌 미디어, 종편의 급성장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가의 미디어 서비스 환경에 놓이게 돼 부에 따른 문화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가속화됐다.

이런 자본 중심적 환경 변화로 인해 방송의 공영성, 공공성에 대한 가치 부여와 관심은 지지부진해지고, '국민의 권익 대변, 공정 사회 구현, 다양한 문화 창달'이라는 방송의 사명을 잊은 듯 방송사 대부분이 경쟁적 수익 추구와 내부 효율성 강화만을 목표로 달려왔다. 이의 결과인 듯 얼마 전 모 방송사의 젊은 PD는 열정 페이에 시달리는 동료들을 수시로 해고해야만 하는 제작 문화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촛불집회에서는 '언론 공범'이라 불리며 크나큰 비판을 받기까지 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근로자의 절망을 낳고 있는 상업주의 중심의 방송 정책은 이번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간절히 바라며 투표에 적극 참여했을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는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한 우선 개혁은 필수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아닌 감시와 견제에 가치를 두는 개혁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우선 과제기 때문이다.

작년 대한민국을 활활 타오르게 했던 '촛불 민심'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공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일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 창구라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을 우선 시행해,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희망 정부의 단단한 초석이 다져지기를 기대한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 행 인 | 박종석
편집주간 | 유주열
편집위원 | 허슬기, 김지욱, 남태현, 최권용, 김주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 쇄 인 | SJC성전
주 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전 화 | 02-3219-5637
트 위 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2017년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직군별 특성화 교육

미래방송기술 창의인력 양성사업

교육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교육비 무료(중식을 제외한 기타 숙식비는 각 사 자체 부담)
교육 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접수 일정 매월 접수,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교육 접수 후 참가가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 필수
(무단 지각 및 결석 시 추후 교육 신청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문의
TEL 02-3219-5640~1 / FAX : 02-2647-6813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홈페이지 edu.kobeta.com
E-mail bea@kobeta.com

구분	교육과정명	목표인원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대상
UHD 전문가 양성과정	UHD 제작 워크플로우 실무(1차)	20	6.21-6.23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지상파방송 기술인
	UHD 제작 워크플로우 실무(2차)	20	9.20-9.22		
	UHD 송신 시스템	20	7.18-7.20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남산 송신소	
	UHD 후반 작업과 색재현	20	8.16-8.18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오디오&조명 전문가 양성과정	방송조명 제작 워크플로우 실습	10	6.13-6.15	미정	
	오디오 Mixing&Mastering 실습	10	8.22-8.24	미정	
방송 시스템 전문가 양성과정	네트워크 및 파일기반 워크플로우 실무	20	11.07-11.10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차세대 라디오 및 모바일 방송	15	10.18-10.20		
	디지털 신호 시스템 품질 관리	15	7.04-7.06		
지역 방송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경남권 지역방송기술세미나	25	4.19	KBS창원총국	
	제주권 지역방송기술세미나	25	6.29	미정	
	강원권 지역방송기술세미나	20	8.30		
	전북권 지역방송기술세미나	20	10.24		
글로벌 방송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글로벌 방송제작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5	7.14-7.19	일본, 도쿄	
	글로벌 뉴미디어 전문가 양성과정	5	9.12-9.1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컨벤션 센터	
세미나 및 컨퍼런스	KOBA World Media Forum	-	5.16	Coex 401호 컨퍼런스룸	지상파방송기술인 예비 방송기술인 일반인
	KOBA Conference (Pre-Engineer)	-	5.17	Coex 컨퍼런스룸	
	KOC 2017	-	미정	미정	
	UHD 방송기술 세미나 (UHD 방송의 쟁점과 전망)	-	5.24(예정)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 위 교육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edu.kobeta.com)를 참고 바랍니다.

KOBA 2017
www.kobashow.com

산업통상자원부 ufi Approved Event 서울특별시

KOBA

27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27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7.05.16-19 | COEX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예정)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 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